

외래 잡초 발생 및 방제전략(2)

가시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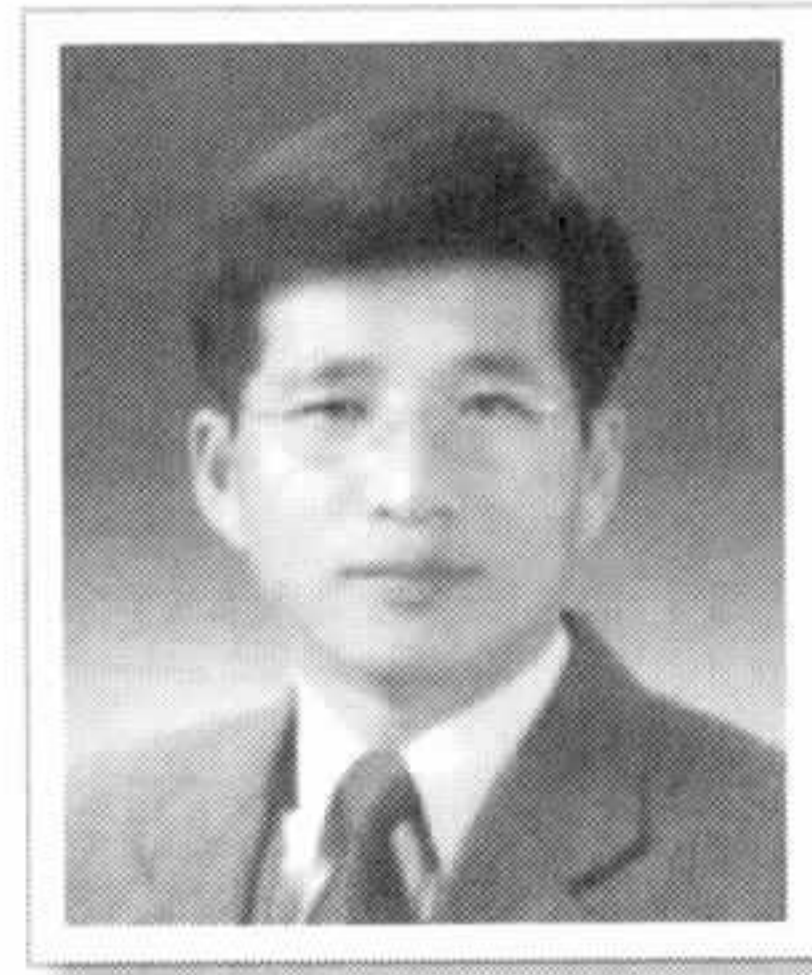
(spiny pigweed)

비름과 일년생 악성외래잡초, '가시·초산염 성분' 인축 위해
'종자 맺지 않도록 해야' 근절 가능, 대단위 발생땀 제초제로

가시비름(학명 : *Amaranthus spinosus*, 영명 : spiny pigweed)은 열대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비름과의 일년생 잡초로 악성 외래잡초 중의 하나이다. 가시비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길이 5~20mm의 단단한 가시가 가시비름 줄기의 기부에 있어 가축이 섭식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는 인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가시비름은 건초나 사료용 곡물에 혼입이 되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0년대에 제주도 목장지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후 제주의 대부분의 목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전남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시비름은 5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보통은 높이 40~80cm정도이나 조건이 좋으면 150cm내외까지 자란다. 줄기는 암녹색이고 털이 없고 광택이 있으며 똑바로 서고 가지를 친다. 잎은 어긋나기이다. 잎자루가 있고



이인용
농촌진흥청 잡초관리과

기부에 1쌍의 길이 5~20mm의 단단한 가시가 있다. 6~9월에 꽃이 피며, 10월경에 결실한다. 종자 생산량은 최대 주당 230,000립 정도이며, 19년이 지난 종자도 4%정도의 발아율을 나타내어 수명이 긴 초종이다. 그리고 가시비름은 다른 비름과

잡초와는 다르게 줄기의 재생력이 뛰어나 줄기가 절단되어 땅속에 묻힐 경우 100% 발근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시비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첫째, 줄기에 가시가 있어 가축이 먹기를 기피하므로 초지를 황폐화시키고, 둘째로 가시비름에는 다량의 초산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가축이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로 가시비름은 종자생산량이 많고 줄기에 대한 영양번식을 하는 번식력이 매우 강한 잡초로 한번 농경지에 유입되면 방제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물체가 커지면 접근하기 어렵다. 넷째로는 목초와 빛, 양분 그리고 수분의 쟁탈을



가시비름 생육(5월하순)

가시비름 생육(6월중순)

방제효과(6월중순, 약제처리 대 무처리)

가시비름 생육(7월중순)

가시비름 재생(줄기에서 발근)

생육(날카로운가시 9월초)

둘러싼 경합피해가 발생되어 목초의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다섯째로 가시비름은 목초이외의 발작물 주위에 발생되면 벌레와 병원균과 선충 그리고 바이러스(담배모자이크병)의 기주가 되어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년생 잡초인 가시비름의 방제는 종자가 맺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자를 생산하지 않게 하면 그 다음해에 발생을 급격히 줄일 수 있어 근절이 가능하다. 생육중기(7~8월경)에 낫 등으로 줄기의 밑둥을 절단하여 제거할 수도 있으나 제주의 목장은 대부분 면적이 워낙 넓어 인력이나 기계를 이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단위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초제로 처

방제약제 및 처리시기별 방제효과

(약제처리 30일 후 달관평가)

약제명 (상표명)	사용량 (10a)	처리시기별 방제효과(%)		
		5월24일	6월3일	7월18일
디캄바액제 (반벨)	100ml	80%	95%	95%
메코프로프액제 (영일엠시피피)	500ml	92%	100%	95%

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시비름 방제를 위하여 목초지에서 실시한 현지포장시험 결과, 경엽처리형 제초제인 디캄바액제나 메코프로프액제를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이 때의 방제적기는 가시비름의 초장이 30~50cm 내외인 6월초순부터 7월 초순까지이다. Y